

보도시점

2026. 9. 10.(목) 14:00

배포

2026. 9. 10.(목)

국내 태양광산업,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 강화 위원회, 첫 회의 열고 태양광 공급망 재건 및 차세대 기술 선점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0일 코리어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와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 복원 방안을 마련했고, 태양광 보급 성과가 국내 셀·모듈·인버터 등 산업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과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국산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수렴하고, 국내 가치사슬(밸류체인) 기업 간 연계·상생의 모범사례를 도출하며, 차세대 초격차 기술(탠덤 셀, 인버터 등)의 세계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실증 단지 구축, 산·학·연 협력방안 등 지원책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분과별 추진과제>

- ▲ (총괄기획) 태양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분과간 이견 조율
- ▲ (공급망 재건) 업계 상생방안,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밸류체인 강화, 투자·세제 지원 등)
- ▲ (초격차 기술) 차세대 태양전자·인버터 기술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실증 기획 등
- ▲ (시장연계 및 보급) 국산제품 우선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태양광산업은 기존 실리콘 중심에서 차세대 태양광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며, “위원회 논의를 통해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1-5370)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044-203-5378)



1. 추진배경

- 재생e '30년 100GW 위해 태양광 보급과 함께 '산업경쟁력' 확보 필요

2. 회의 개요

- (일 시) 2026. 9. 10.(목), 14:00 ~ 16:00
- (장 소) 서울 코리어나 호텔 7층 스테이트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어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
- (참 석 자) 기후부 제2차관^{주제}, 재생에너지정책관, 태양광산업과장,
위원회 분과별(총괄기획, 공급망재건, 초격차 기술, 시장연계 및 보급) 위원,
에공단 재생에너지센터소장, 태양광기획·산업처장 등 40명 내외
- (주요내용) 태양광 경쟁력 강화 위원회 발족 및 세부계획 안내

3. 세부 일정(안)

시 간(120')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인사말	기후에너지환경부
14:10~14:30 (20')	○ 행사 안내 및 분과별 위원 소개	
14:30~15:10 (40')	○ 위원회 운영계획 및 추진목표 안내	
15:10~15:50 (40')	○ 분과별 추진과제 토론	
15:50~16:00 (10')	○ 마무리	기후에너지환경부